

## 한국 뮤지컬의 변천과 뮤지컬 의상의 특성에 관한 고찰

김희정<sup>†</sup>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 A Consideration on the Change of Korean Musical and the Characteristic of Musical Costume

Hee-Jung Kim<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10. 6. 30. 접수일 : 2010. 10. 27. 수정완료일 : 2010. 12. 4. 게재확정일)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know the trace of Korean musical, consider musical depending on its type, arrange characteristic of musical costume and find ou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musical costume with potentials as a culture industry. For study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sis, academic journal, book and internet web-site concerning musical costume, literatures were considered and performance costume photos, which were captured via musical performance site,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Korean modern-day musical is regarded as starting with <Saljjagi Opseoye>(1966) in the full scale. Although foreign musical was imitated in 1970s~1980s, it may be called the growth period of Korean musical because the period showed the commercial possibility. Since 1990s, large-scaled musical securing good work and popularity was popular. In 2000s, musical industry was abundan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 investment or popularity was significantly expanded. The type of Korean musical are divided to opera musical of European, Broadway musical of American and creative musical of Korean. The costumes used in opera musical of European and Broadway musical of American are borrowed from original works through license or were manufactured in Korea by referring to the costumes of original works and using similar materials or fabrics. The costumes used in creative musical of Korea are designed by either domestic or foreign designers and produced in Korea.

*Key words: Korean musical(한국 뮤지컬), costume of musical(뮤지컬 의상), creative musical of Korean (한국적 창작 뮤지컬).*

#### I. 서론

뮤지컬은 10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그 안에 인류사의 모든 예술 장르가 혼합되어 있으며 합리성과 과학성, 대중성이 혼합되어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예술 형태로 서<sup>1)</sup>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예술이다.

이 논문은 2010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sup> 교신저자 E-mail : heejee05@hanmail.net

1) 차태호, *꿈의 예술 뮤지컬 연출 체크리스트*, (서울: 엠에드, 1999), p. 13.

21세기 한국공연예술의 특징 중 하나는 산업사회에 걸 맞는 공연 양식인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뮤지컬 공연이 활성화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작 뮤지컬의 발굴과 질적 향상, 한국 뮤지컬의 활성화, 세계화,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1년 동안 공연된 창작, 번안, 번역된 뮤지컬 작품을 대상으로 ‘한국 뮤지컬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0년으로 16회를 맞이하지만 역대 무대 미술 분야(무대, 소품, 의상 등)의 수상자 중 의상디자이너는 2회 때 기술상으로 수상한 <명성황후>의 김현숙, 5회 때 <바리-잊혀진 자장가>의 변창순, 6회 때 <록 햄릿>의 이태섭, 7회 때 <렌트>, <시카고>, <듀엣>, <올댓제즈>의 이수동, 12회 때 <불의 검>의 황연희 정도이다<sup>2)</sup>.

우리나라의 뮤지컬 인구를 대략 3백만 명, 뮤지컬 시장을 2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 시점에서<sup>3)</sup>, 해마다 의상디자이너상을 수여하는 영국의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Laurence Olivier Awards)’나 ‘토니 어워드(Tony Award)’와 비교해 볼 때 국내 뮤지컬 의상 분야의 입지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뮤지컬 의상 분야도 뮤지컬 발전 속도에 발맞춰 창의적인 의상디자이너의 육성과 뒷받침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목적은 이제까지 하나의 뮤지컬 작품을 주제로 한 의상 연구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뮤지컬 의상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50년 남짓한 우리나라 뮤지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연 유형별로 뮤지컬 의상의 특성을 정리하여 자료화함으로써 앞으로 공연될 뮤지컬의 의상 기획 시 필요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뮤지컬 의상에 대한 연구논문, 학술지, 관련 서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 고찰 하

였고, 공연 관람과 뮤지컬 공연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여 캡처한 공연 의상 사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뮤지컬의 특성

뮤지컬은 오페레타(operetta)로 대표되는 가벼운 오페라 스타일의 장르들인 오페라 부파(opera buffa), 오페라 코미크(Opéra comique), 발라드 오페라(ballad opera)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4)</sup>.

1866년 미국인에 의해 공들여 만든 무대, 화려한 의상, 반라의 무용수 등 뮤지컬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춘 최초의 뮤지컬적인 작품인 <더 블랙 크룩(The Black Crook)>이 공연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893년 <게이티 걸(A Gaiety Girl)>이라는 작품을 올리면서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라는 말을 사용하였다<sup>5)</sup>.

이렇게 뮤지컬은 19세기말 정치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영국 런던에서 처음 생겨났으며, 이때 붙여진 이름은 음악이 있는 소극(笑劇)의 의미인 뮤지컬 파스(Musical Farce)였다. 점차 비극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등장하고 사실적 이야기로 바뀌면서 코미디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가 공연되면서부터는 뮤지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sup>6)</sup>.

뮤지컬은 내용면에서 볼 때 다른 공연예술보다 화려하고 환상적이며 낭만주의 성향이 있어서 사실주의 연극과 구별되는 독특한 감성이 있다. 또한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연극적인 라인을 유지하면서 음악과 춤이 가미되어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한 종합극의 성격을 지닌다<sup>7)</sup>.

뮤지컬을 분류하면 특별한 드라마적인 구성이 없이 현대적인 춤과 정치적 풍자, 단색 조명과 기괴한 무대로 실험적인 연극 경험을 제공하는 레뷰

2) 15th 한국뮤지컬대상시상식, [2009년 10월 2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koreamusicalawards.com/>

3) THE MUSICAL, No. 76. ((주)클럽서비스, 2010년 1월), p. 86.

4) 이동섭, *뮤지컬 토크 2.0*, (서울: 미진사, 2009), p. 25.

5) 김기철, *아이러브 뮤지컬*, (서울: 효형, 2002), p. 290.

6) 스티븐 시트론, 정재철, 정명주 역, *뮤지컬·기획·제작·공연의 모든 것*, (서울: 열린 책들, 2001), p. 36.

7) 원종원, “한국뮤지컬 산업의 특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권 1호(2005), p. 129.

(Revue)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혼재된 표현 방식에 중점을 둔 컨셉 뮤지컬(Concept Musical), 노래와 춤이 돋보이는 일상적인 극장쇼 형태인 카바레 뮤지컬(Cabaret Musical)<sup>8)</sup>, 록음악을 사용하며 강한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록 뮤지컬(Rock Musical), 대사 없이 일정한 플롯에 의해 극이 진행되며 극장성을 높인 오페라틱 뮤지컬(Operatic Musical), 클래식 오페라에 가까운 형태로 풍자적이고 희극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오페레타 뮤지컬(Operettas Musical)<sup>9)</sup>, 한 권의 책처럼 기승전결의 구조와 크라이막스를 명확히 구분 짓는 형태의 정통 뮤지컬인 북 쇼(Book Show)<sup>10)</sup>, 화려한 무대장치나 의상 등 장면의 볼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스펙타클 쇼(Spectacle Show), 한 명의 뛰어난 스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타 비이클(Star Vehicle)<sup>11)</sup>, 10여 명 안팎의 적은 인원과 예산, 단일한 세트를 가지고 극을 진행하는 앙상블 쇼(Ensemble Show) 등 다양하다.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은 오페레타 형식의 기초 위에 뮤지컬의 모든 형태를 종합 구성하는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레 미제라블>이나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이 이러한 종합뮤지컬에 속한다.

최근에는 아바의 <맘마미아(Mamma Mia!)>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올 슈 업(All Shook Up)> 처럼 특정 뮤지션의 음악으로 구성된 어 트리뷰트 쇼(A Tribute Show) 형식의 쥬크박스 뮤지컬(Jukebox Musical)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드록 카페>, <와이키키 브라더스>, <달고나> 등이 쥬크박스 뮤지컬로 공연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뮤지컬 <이(爾)>처럼 하나의 뮤지컬을 영화나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화보 책 등 다른 분야로 활용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경향이 많아짐으로써<sup>12)</sup> 예술의 산업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 2. 뮤지컬 의상의 특성

일반적으로 국내의 뮤지컬 의상은 디자인과 제작기간을 포함해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므로 의상 디자이너는 실질적인 제작에 대한 예산 책정, 제작 전문 인력 확보, 공연 일정에 따른 작업 계획 및 관리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내 뮤지컬 의상은 외국의 오리지널 의상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와 오리지널 의상을 기본으로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창작 디자인으로 제작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외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는 국내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작할 때와 달리 대부분 샘플 제작의 요구를 받게 되고, 단기간에 제작된 의상 샘플을 평가하여 제작자의 역량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제작을 의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sup>13)</sup>.

무대 리허설을 거치면서 의상에 필요한 디자인을 첨가하거나 배우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요소를 개선하는데 이러한 피팅 작업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략 3~4차례 정도 행해진다.

의상은 크게 극중 인물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는 성격 의상, 라스베가스의 쇼걸 의상처럼 장식성만을 강조하는 장식 의상, 16세기 섹스피어 극처럼 시대를 표현하여 사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는 시대 의상으로 분류된다. 시대 의상의 경우 시대적 배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필수적이지만 과거의 의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디자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 작품의 주제에 맞게 표현성에 중점을 두고 무대 효과를 살려 독창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sup>14)</sup>.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노래와 춤, 연기를 하는 뮤지컬 배우에 의해 착용되는 의상은 오페라같이 움직임이 적은 무대의 의상보다 시각적인 비중이 크다. 프로덕션 넘버(production number)의 경우 동작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의상도 더 두드러지는 실

8) 손정섭, *뮤지컬 Oh! 뮤지컬*, (서울: 북스토리, 2001), p. 154, 159.

9) 서지성, “뮤지컬 불의 검 공연의상제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38-39.

10) 윤선경, *뮤지컬 테이트*, (서울: 대광서림, 2007), p. 27.

11) 원종원, *op. cit.*, p. 130.

12) 원종원, *올댓 뮤지컬*, (서울: 동아시야, 2006), p. 6.

13) 최영로,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의 무대의상 제작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 62.

14) Jean Hunnisett, *Period Costume for Stage & Screen*, (SC: Players Press, Inc., 1991), p. 8.

루엣과 디자인, 색채를 사용하여 기능적인 동시에 화려하게 디자인된다.

뮤지컬의 특성상 배우의 동작과 춤을 돋보이기 위해 신체의 노출 부위를 고려하며, 넥라인과 복부 부위에 여유를 주어야 한다. 신축성이 있는 옷감으로 의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특별히 배려할 사항이 없겠지만 신축성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패턴 제작 시 움직임에 지장이 없도록 바지 밑위에 많은 여유분을 주지 않는다든지, 겨드랑이에 무를 대는 등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뮤지컬 작품은 국가나 시대를 뛰어넘어 장기 공연됨으로서 같은 작품을 반복 관람하는 팬층을 형성한다. 따라서 장기 공연을 대비하여 내구성과 스트레치성 등 직물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공연 중 빠른 의상 전환을 위해 적절한 여밈 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 III. 한국 뮤지컬의 역사

#### 1. 초창기의 한국 뮤지컬(탄생~1960년대)

해방 후 대중연예의 흐름은 ‘악극-뮤지컬 쇼-뮤지컬’의 변천사로 정리할 수 있으며 많은 악극인들이 미국식 쇼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뮤지컬 전문 쇼단으로 변신했다.

미국풍의 뮤지컬 쇼가 흥행할 즈음 한국 뮤지컬의 효시라고 보이는 두 편의 음악극이 공연되었는데 첫째는 예그린 악단의 창립 공연인 <삼천만의 향연>(1962)이고 둘째는 드라마 센터의 <포기와 베스>(1962)이다<sup>15)</sup>.

하지만 당시 공연평을 보면 <삼천만의 향연>은 뮤지컬도 악극도 아닌 국악과 양악이 융합된 종합 구성임을 알 수 있으며, <포기와 베스>도 “노래와 춤이 완숙하진 못해도 뮤지컬 공연으로선 훌륭하게 형상화되었다.”<sup>16)</sup> 차범석의 평은 있었지만 ‘뮤지컬 이전의 무드 연극’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여 본격적인 뮤지컬로 볼 수 없다.

격적인 뮤지컬로 볼 수 없다.

현대적인 뮤지컬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그린 악단의 <살짜기 읍서예>(1966)인데 이는 현대적인 뮤지컬이 탄생한지 꼭 100년 만에 선보인 본격적인 한국 창작 뮤지컬의 효시이다<sup>17)</sup>(그림 1). 여주인공 애랑 역에 인기가수 패티킵, 배비장 역에 코미디언 광규석을 내세우는 등 스타 시스템으로 주목을 끌었으며 300여 벌의 화려한 고전의상도 볼 만했다.

예그린 악단(서울시립뮤지컬단으로 개칭)은 이후 <대춘향전>, <시집가는 날>, <양반전>, <상록수> 등의 각색 작품이나 <지붕 위의 바이올린> 같은 번역물을 무대에 올렸다. 관의 지원을 받은 예그린 악단의 제작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레퍼토리나 활동 방식은 제한적이었다<sup>18)</sup>. 관극이 아닌 민간 극단에서 올린 최초의 뮤지컬은 동량레퍼토리 극단의 <포기와 베스>(1966)이며 당시 큰 호평을 얻었다.

1960년대의 뮤지컬 공연은 번역 뮤지컬을 통한 뮤지컬의 수용과 창작 뮤지컬을 통한 뮤지컬의 토착화 사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는 드라마센터와 실험극장이, 후자는 제3극장과 예그린 악단이 주도하였다<sup>19)</sup>. 1960년대 우리나라의 뮤지컬 운동은



<그림 1> 살짜기 읍서예(정재왕, 뮤지컬을 꿈꾸다, p. 67).

15) 김성희, “한국 초창기 뮤지컬 운동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한국예술연구* 14집 (2002), p. 68.

16) 차범석, “또 하나의 가능성,” *한국일보*, 1962년 8월 9일.

17) 최창권, *한국음악총람*, (서울: 한국음악협회, 1991), p. 514.

18) 이보연, *뮤지컬 포에버*, (서울: 루비박스, 2007), p. 45.

19) 김성희, *op. cit.*, p. 64.

단순히 서구 뮤지컬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토착화를 위한 ‘한국 뮤지컬’의 창조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2. 한국 뮤지컬의 성장기(1970~1980년대)

1970년대에도 <바다여 말하라>, <화려한 산하>, <종이여 울려라>, <시집가는 날>, <상록수>, <태양처럼> 등 한국적 창작 뮤지컬이 꾸준히 공연되었으며, 80년대에는 창작 뮤지컬보다는 브로드웨이의 유명 뮤지컬을 들여와 공연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 있었다<sup>20)</sup>.

민간단체에 의한 뮤지컬은 1970년대에 이르러야 모습을 드러낸다. 극단 현대극장은 상송가수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빠담빠담빠담>(1977)에 가수 윤복희를 출연시켜 주목받았으나 상업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민간단체로는 극단가고, 현대극장 등이 있으며 민중, 대중, 광장 세 극단은 <아가씨와 건달들>(1983)을 공연하여 초연 때부터 큰 호응을 얻음으로서 일대 뮤지컬의 대중화 바람을 몰고 왔다. <아가씨와 건달들>(1983 초연)로 성공한 세 극단은 독자적으로 <카바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피핀>, <레 미제라블>, <코러스 라인>, <캣츠> 등 브로드웨이 성공작들을 원작 그대로 본떠 공연하였다.

한편 1986년 창단된 뮤지컬 전문단체 88서울예술단(현 서울예술단)은 <한강이 흐른다>(1987)를 시작으로 창작 뮤지컬을 꾸준히 공연하였다. 1988년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출발하였던 롯데월드 예술극장은 <신비의 거울 속으로>(1989)를 시작으로 <가스펠>, <아가씨와 건달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돈키호테>, <레 미제라블> 등 번역 뮤지컬을 공연해오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해체되었다.

1980년대의 뮤지컬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1990년대를 예비하는 시기로 미국식과 영국식 뮤지컬이 상업적으로 공연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3. 한국 뮤지컬의 대중화(1990년대)

1990년대는 경제적·문화적 발달로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고급문화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증가하여 본격적인 뮤지컬 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극단 맥토, 모시는 사람들, 신시뮤지컬 컴퍼니, 에이콤, 서울뮤지컬 컴퍼니 등의 공연 작품이 돋보였으며 이들은 최고의 민간 뮤지컬 단체로 발돋움 하였다.

수입 뮤지컬이 주로 공연되던 뮤지컬시장에 극단 맥토의 <동승동 연가>(1993)와 <번데기>(1994),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블루 사이공> 등 창작 뮤지컬이 꾸준히 시도되어 작품성과 함께 대중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김민기가 이끄는 학전극단은 <지하철1호선>, <의형제>, <모스키토> 등 외국의 수작을 한국적으로 변안하고 새롭게 연출하여 성공적으로 장기 공연되기도 하였다(그림 2).

극단 신시뮤지컬 컴퍼니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1995), <그리스 록큰롤>(1995), <사운드 오브 뮤직>(1996), <7인의 신부>(1995), <만해 한용운> 등을 공연하여 관객 동원에도 성공하였고, 뮤지컬 전문 단체를 표방하고 나선 에이콤은 <아가씨와 건달들>(1994), <스타가 될 거야>(1995), <명성황후>(1996), <겨울 나그네>(1997) 등을 공연하면서 국내 최고의 뮤지컬 단체로 입지를 다졌다.

서울뮤지컬 컴퍼니는 <사랑은 비를 타고>(1995),



<그림 2> 지하철1호선(이지원, 뮤지컬 쇼쇼쇼, p. 274).

20) 노영해, “1990년대 후반과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 뮤지컬의 주제와 작품경향” [2009년 11월 2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blog.daum.net/gangseo>



〈그림 3〉 난타(<http://www.musicalcats.co.kr>)

〈쇼 코메디〉(1996) 등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으며, 삼성영상사업단은 〈42번가〉(1996), 〈웨스트사이드 스토리〉(1997) 등을 수입하여 국내 배우와 외국 배우가 함께 공연하는 공동 시스템 작품을 선보이며 규모를 대형화하였다. 영국 RUG(Really Useful Group)의 〈캣츠〉(1994)가 정식 수입되어 공연됨으로서 이전의 불법 복제의 관행도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말부터 비언어극이 등장하였는데 1990년대 초 영국에서 공연된 〈스톰프(Stomp)〉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난타〉(1997)가 제작되었다. 〈난타〉의 성공으로 〈두드락〉, 〈도깨비 스톰〉, 〈점프〉 등이 잇따라 등장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 무대에서 공연되기도 했다<sup>21)</sup>(그림 3).

#### 4. 한국 뮤지컬의 산업화와 다양화(200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 한 해에도 수십 편의 작품이 공연되고 있어서 ‘뮤지컬 빅뱅’이라고 할 정도로 뮤지컬 산업이 팽창하였다. 그 기폭제가 된 〈오페라 유령〉(2001)이 1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뮤지컬 시장은 산업화의 문턱을 넘었고, 2005년 처음으로 연간 관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2,000억 원의 매출규모로 뮤지컬 시장이 커졌다<sup>22)</sup>.

영국 뮤지컬 〈맘마미아!〉(2004),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2005)의 성공적 수입으로 해외 뮤지컬의 국내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외국 공연의 신작들이 1~2년 이내에 국내 무대에 소개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의 공연물이 초연 이후 1년간 작품을 다듬고 라이선스를 준다는 점에서 동시 공연과 마찬가지로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뮤지컬 진출은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의 대형 뮤지컬을 수입하고, 이제까지 중소 규모에 머물던 창작 뮤지컬에도 눈을 돌려 〈불의 검〉(2005), 〈겨울연가〉(2006), 〈덴싱 새도우〉(2007) 등 규모 있는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뮤지컬의 산업화와 창작 뮤지컬의 활성화를 촉진하였다.

뮤지컬 산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장기 공연은 절대적이며 이를 위해 1,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극장의 확보는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이다<sup>23)</sup>.

2009년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브로드웨이에서 검증받은 안정적인 라이선스 뮤지컬은 증가하고 전체 뮤지컬 공연 수는 전해에 비해 약간 줄었다. 하지만 창작 뮤지컬 〈마이 스케어리 걸〉(2009)이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NYMF)에서 최우수 신작 뮤지컬상과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는 등<sup>24)</sup>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작품의 세계 진출과 뛰어난 기량의 뮤지컬 가수들의 활약은 증가하고 있다.

## IV. 한국 뮤지컬의 유형과 의상 특성

현재 한국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의 유형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풍의 오페라적 뮤지컬, 둘째가 춤의 비중이 큰 미국의 브로드웨이적 뮤지컬, 셋째가 한국적 창작 뮤지컬이다(표 1).

### 1. 유럽의 오페라적 뮤지컬

오페라에서 뮤지컬이 발생되었다는 점과 구성요소가 같다는 점, 시대를 반영하는 대중 오락이라는 점에서 두 공연예술은 공통점을 지닌다<sup>25)</sup>. 연기와 노래에 깊이가 있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풍의 오페라적 뮤지컬로 토니상 의상상을 수상하고 본격적인 산업화의 계기가 된 〈오페라의 유령〉, 대극장 최초로 장기 공연 기록을 세운 〈아이다〉, 국내 공연

21) 이보연, op. cit., p. 50.

22) “뮤지컬 관객 年100만 시대,” *조선일보*, 2005년 9월 23일, p. 2.

23) THE MUSICAL, NO. 78. ((주)클럽서비스, 2010.3), p. 79.

24) “마이 스케어리 걸 뉴욕 우뚝,” *metro*, 2009년 11월 3일, p. 36.

당시 최고의 뮤지컬로 선정된 <노트르담 드 파리>를 고찰하였다.

### 1) <오페라의 유령> (Phantom of Opera)

프랑스의 추리작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가 발표한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것으로<sup>26)</sup> 한 때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날렸으나 잊혀진 존재가 되어 버린 오페라의 유령이 미모의 오페라 가수 크리스틴(Christine)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하지만 결국 사랑을 얻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다.

1986년 영국에서 초연되었고 1988년 토니상 의상디자이너상을 수상하였으며<sup>27)</sup>, 한국에서는 2001년 라이선스 형식으로 공연되었는데 100억에 달하는 한국 뮤지컬 최대 제작비, 7개월간의 최장 공연을 기록하는 등 한국 뮤지컬의 전환점을 만들었다<sup>28)</sup>.

<오페라의 유령>의 화려롭고 화려한 230여 벌의 의상은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로 19세기말(1881년) 파리에서 유행하던 의상과 헤어 스타일을 고증하여 무대에 재현해내었다. 한국공연에서 사용되었던 의상은 RUG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으로, 필요한 의상은 180~200여벌이지만 실제 공수해 온 의상은 얼터니트(Alternate)나 커버(Cover)의 의상을 포함하여 1,000벌의 의상과 수선 시 필요한 원단까지 포함된 막대한 물량이었다<sup>29)</sup>.

공연 당시 크리스틴을 연기한 여배우는 오페라 가수라는 역할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연 중 12번이나 의상을 갈아입고, 카로타(Carlotta)역의 배우는 화려한 장면을 위해 장식이 붙어 20kg에 육박하는 벨벳 소재의 무거운 드레스를 소화해야했다.

<오페라 유령>의 의상은 격한 동작에 대비하여 액세서리 하나도 손바느질로 튼튼히 달고, 후크도 양방향에서 채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작되었으며, 치마에 지퍼를 달아 배우의 키에 맞춰 스커트 길이

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교한 장식이 많거나 화려한 의상 등 세탁이 어려운 의상의 겨드랑이 부분에는 탈부착이 자유로운 땀 패드를 대어 매일 갈아줌으로서 배우의 컨디션을 최고로 하기 위해 섬세하게 배려하였다.

<오페라의 유령>에서 남자 주인공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 쓴 흰색의 부분가면은 세상으로부터 숨고자하는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뿐 아니라 극 전체의 스틸러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유령의 얼굴은 가까이에서 보아도 현실감이 있을 만큼 정교하였는데 초창기에는 특수 분장을 위해 2시간이나 소요되었다.

공연에 사용된 가발은 총 80~90개 정도인데 모두 진짜 머리카락을 심은 망 가발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각각의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한국 공연에서 사용한 가발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 가발과 달리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동양인의 얼굴에 어울리도록 웨이브를 확실히 넣어 머리 스타일을 잡아주는 등 배우의 외모를 돋보이도록 하였다.

### 2) <아이다> (Aida)

<아이다>는 오페라를 원작으로 제작된 뮤지컬로 비극적인 결말의 오페라와 달리 동양식 유희사상을 도입하여 아련한 사랑이야기로 탈바꿈시킴으로서 해피엔딩의 가족뮤지컬이 되었다. 환상적인 조명과 결합하여 독특한 색상의 현대적인 무대를 만들어냄으로서 귀보다 눈이 먼저 반응하는 작품으로 호평 받았다.

2005년 한국 초연 당시 12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화려한 무대와 의상을 제작하였으며 8개월간 장기 공연되었는데<sup>30)</sup>, 스타 마케팅 차원에서 가수 옥주현을 주역으로 내세웠다.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팀이 사용했던 컨테이너 9개 분량의 무대와 의상을

25) 어은정, “Opera와 Musical의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1.

26) 서정미, *런던에서 뮤지컬 보기*, (서울: 우일, 2007), p. 206.

27) The Official Website of American Theatre Wing's Tony Awards, [2009년 10월 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tonyawards.com/en\\_US/index.html](http://www.tonyawards.com/en_US/index.html)

28) 설도윤, *오페라의 유령 가면을 벗다*, (서울: 숲, 2005), p. 53, p. 92.

29) Ibid., p. 119.

30) 이보연, op. cit., p. 393.



공수하여왔으며 구입 비용만 20억 원이 소요되었다<sup>31)</sup>.

무대디자이너인 동시에 의상디자이너인 밥 크롤리(Bob Crowley)의 독창성은 이집트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였다<sup>32)</sup>. 이집트의 암네리스(Amneris) 공주는 A라인에 스탠드 칼라가 달린 새틴 재질의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부터 야광 의상까지 12번이나 의상을 갈아입고, 누비아(Nubia)의 공주였던 아이다는 실루엣이 드러나는 소매 없는 단색 원피스를, 이집트 사령관인 라다메스(Radames)와 이집트 병사들은 각진 어깨에 롱코트 차림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마치 인도의 네루 스타일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의상들은 감각적인 디자이너에 의해 역사적 고증에 매달리지 않고 세련되고 깔끔하게 현대적 이미지를 반영하였으며 이런 실험적 디자인은 관객의 상상력을 새롭게 충족시켰다.

### 3) <노트르담 드 파리> (Notre Dame de Paris)

대사 없이 54곡의 아리아로만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선율의 대중적인 대형 록 뮤지컬의 형식을 띠고 있어 팝 뮤지컬 혹은 팝 록 볼록버스터 뮤지컬이라고 불린다.

교회가 세상에 중심에 있던 15세기말을 배경으로 집시 에스메랄다(Esmeralda)와 그녀를 사랑하는 노트르담 성당의 종치기 꼬추 콰지모도(Quasimodo), 근위대장 페뷔스(Phoebus), 성당의 신부 프롤로(Frollo) 세 남자의 각기 다른 사랑이 묘사된다.

단순한 성벽 뿐인 무대 장치는 다양한 조명에 따라 성당, 광장, 카바레, 침실, 감옥으로 매순간 다양하게 변하는데 아름다운 조명 외에도 7인의 주역에게 각각의 색채를 부여하였다.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는 그린, 꼬추 콰지모도는 레드, 신부인 프롤로는 블랙, 근위대장인 페뷔스는 실버, 시인인 그랭구아르(Gringoire)는 블루, 에스메랄다의 동생인 크로팽(Clopin)은 연두색, 페뷔스의 연인인 플뢰르 드리스(Fleur-de-Lys)는 핑크로 표현하였다.

의상디자이너 프레드 사탈(Fred Sathal)은 15세

기가 아닌 현대적인 시선으로 의상을 디자인하였는데 시인 그랭구아르에게는 감각적인 메탈 선장식이 있는 파란색 롱코트를, 에스메랄다는 슬릿이 깊은 나염 원피스 드레스를, 페뷔스는 은색 메탈릭 소재 상의에 푸른색으로 염색한 천에 퀴팅 효과를 준 바지를 착용시키는 등 스타일과 소재, 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국내 공연에서는 의상디자이너 정경희가 프랑스의 원작 의상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거의 같아보이도록 제작하였다.

이렇게 오리지널 무대의 의상은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국한되기보다는 현대성과 역사성이 절묘하게 교차되는 형식을 반영하고 있어 관객들에게 과거 파리의 노트르담이 아닌 현재의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 2. 미국의 브로드웨이적 뮤지컬

화려한 무대미술과 의상, 조명으로 환상적인 뮤지컬 세계로 이끌어 눈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한 브로드웨이적인 뮤지컬로는 한국 뮤지컬대상 무대의상상을 수상한 <시카고>, 토니상 의상디자이너상을 수상한 <헤어스프레이>, 세계 4대 뮤지컬로 1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제작한 <캣츠>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 1) <시카고> (Chicago)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인 밥 파시(Bob Fosse)는 1920년대의 미국, 그 중에서도 농염한 재즈선율과 갠문화가 발달하던 시카고의 어두운 뒷골목에 관능적 유희와 살인이라는 대중적 테마를 결합해서 전 세계의 관객을 사로잡았다<sup>33)</sup>.

1924년 시카고의 여성 살인범 록시 하트(Roxie Hart)와 벨마 켈리(Velma Kelly)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모린 델러스 왓킨스(Maurine Dallas Watkins)의 동명 희곡이 원작이며, 197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었다.

2000년에 이루어진 한국 초연에서는 뮤지컬 스타 최정원과 전수경이 록시 하트 역을, 가수 인순

31) 박명성, *뮤지컬 드림*, (서울: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2009), p. 142.

32) 이지원, *뮤지컬 쇼쇼쇼*, (서울: 삼성, 2008), p. 163.

33) musicalchicago 홈페이지 [2010년 3월 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musicalchicago.co.kr>



이가 벨마 켈리 역으로 캐스팅되어 연기 대결을 펼쳤으며 3,800석을 채우며 성공적인 공연을 하였다.

금발의 웨이브 있는 헤어 스타일과 배우의 몸매를 드러내는 레이스 소재의 타이트한 검정색 원피스는 세상을 향한 주인공의 도발적인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벨마 역시 단순한 검정색 원피스를 착용하지만 록시 하트보다 덜 여성적이고 강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검정색 새틴소재를 사용하여 직선의 네크라인과 단순한 실루엣으로 디자인되었다.

2007년과 2008년의 리바이벌 무대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스포트라이트 안에서 하얀 조명과 검정의상이 완벽한 흑백 대비를 이루며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였다<sup>34)</sup>.

원작의 의상디자이너인 윌리엄(William Ivey Long)은 2006년에 ‘공연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실력파이며, <시카고>가 유명한 것은 여배우들이 검은색 슬립과 검정 스타킹, 검정 중절모의 섹시한 옷차림으로 위험할 만큼 매혹적으로 춤을 추어 팝문화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헤어스프레이> (Hairspray)

1988년 개봉한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헤어스프레이>는 영화와 뮤지컬의 합성어인 뮤비컬이라고 불리는 작품 중 하나로 1962년 미국의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한다.

TV 댄스 쇼에서 최고의 댄싱 퀸인 ‘미스 헤어스프레이’가 되는 것이 꿈인 트레이시(Tracy)가 아름다운 외모를 권력같이 강조하는 악녀 벨마(Velma)와 그녀의 딸 앰버(Amber)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개오디션에 참가하여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밤새 춤을 추어도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마법의 도구인 헤어스프레이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시대의 상징이자 과거를 추억하는 하나의 코드로 작용한다. 캔디컬러에 X자 라인으로 부풀린 스커트 실루엣과 강렬한 원색의 미니멀리즘 의상, 모즈 록 등 600벌이나 되는 화려한 복고

의상이 등장한다.

똥똥하지만 쾌활한 여자 주인공 트레이시는 플랫칼라에 앞가슴에 러플 장식이 많은 꼭 끼는 흰색 블라우스와 타이트한 무릎 길이의 남색 스커트나 갈색 체크 무늬 플리츠 스커트, 흰 양말, 칼라 스니커즈를 신은 전형적인 60년대 십대의 모습이다. 세탁업을 하는 엄마 에드나(Edna)는 드래그(drag) 배역으로 턱수염까지 밀어버리고 수다스럽고 낙천적인 여성 배역을 수행한다. 오디션 때 모녀는 모두 화려한 하트 문양과 스커트 단에 러플 장식이 있는 핑크색 원피스 차림인데 머리 리본과 구두까지 핑크색으로 통일하여 더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헤어 스타일은 인물 이미지 변신의 중요한 요소인데<sup>35)</sup> 주인공 트레이시의 트레이드마크는 60년대 당시 인기 있던 재클린 케네디 여사의 보브 스타일(bob style)로 공기를 불어넣어 한껏 부풀린 헤어 스타일이다. 이 작품에는 조개머리, 별집 모양, 헬리콥터 모양, 스텝크 꼬리 모양, 총채 모양 등 보기만 해도 즐거운 복고풍의 헤어 스타일이 등장한다.

국내 공연에서 사용된 의상은 소재와 색상엔 변화를 주었지만 원작 의상의 스타일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 3) <캣츠> (Cats)

인간 구원이라는 목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캣츠>는 특수 효과를 활용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고양이들의 환상적인 춤과 노래가 시종 관객을 압도한다<sup>36)</sup>.

영국의 대문호 엘리엇(T. S. Eliot)의 우화시집 「지혜로운 고양이 되기 위한 지침서(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로 1982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 30여 개국에서 5천만 명이 관람하였으며<sup>37)</sup> 웨스트엔드에서 21년간 장기 공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처음 공연되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2000년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기도 했다<sup>38)</sup>.

34) 이지원, op. cit., p. 227.

35) 강대영, *한국분장파 예술*, (서울: 지인당, 1999), p. 27.

36) 정재왕, *뮤지컬을 꿈꾸다*, (서울: 아이세움, 2009), p. 144.

37) 김기철, op. cit., p. 48.

38) “국내판 ‘캣츠’ 저작권위반… 국내공연금지,” *한국경제신문*, 2000년 5월 17일.

2008년에는 오리지널 내한 팀과 국내 팀에 의한 첫 한국어 공연이 몇 달 간격으로 펼쳐졌는데, 국내 팀 공연에는 그라자벨라 역에 옥주현을 비롯한 뮤지컬 스타들과 수준급의 발레리노들, 럼 팀 터거 역의 대성(빅뱅) 등 최상의 캐스트 라인업을 선보였다<sup>39)</sup>.

의인화 된 고양이의 의상을 만드는데 사용된 야크 털이 1,500kg, 가발을 만드는데 사용된 털의 무게가 1,229kg이라는 이색적인 기록을 지니고 있다<sup>40)</sup>.

〈캣츠〉에는 군살하나 없는 몸매를 자랑하는 하얀 여자 고양이 빅토리아(Victoria), 도둑 고양이 커플 몽고제리(Mungojerrie)와 럼플티저(Rumpletazer), 마법사 고양이 미스터 미스토펠리스(Mr. Mistoffelees) 등 28마리의 고양이가 나오는데 노래하는 고양이와 춤추는 고양이가 따로 존재한다.

‘메모리’를 부르는 비운의 늙은 창녀 고양이 그라자벨라(Grizabella)는 누더기 옷에 검정 술을 걸치고 고양이 중 유일하게 하이힐을 신고 있으며, 여자 고양이들을 열광시키는 터프한 고양이 럼 팀 터거(Rum Tum Tugger)는 목에 날카로워 보이는 스파크 장식이 있는 초커(choker)와 몸에 딱 끼는 검정 타이츠가 섹시하고, 상류층 클럽만 출입하는 뚱뚱한 신사 고양이 버스터퍼 존스(Bustopher Jones)는 검정 턱시도에 거대한 숭가락을 지팡이 삼아 짚고 다니는 등<sup>41)</sup> 뮤지컬에 등장하는 모든 고양이들은 저마다의 특색 있는 바디슈트와 소품, 가발로 개성을 살리고 있다.

### 3. 한국적 창작 뮤지컬

창작 뮤지컬은 한국인 제작자가, 한국적인 소재를, 한국 자본으로, 한국 배우와 스태프를 동원해 만드는 뮤지컬을 지칭한다. 유럽풍 뮤지컬과 미국풍 뮤지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중에서 대형 창작 뮤지컬 최초로 15년째 장기

공연중인 〈명성황후〉, 7년의 제작 기간으로 공들인 〈댄싱 새도우〉, 2010년 뮤지컬어워드 최우수창작 뮤지컬상을 수상한 〈영웅〉을 고찰하였다.

#### 1) 〈명성황후〉

뮤지컬 전문 극단 에이콤이 이문열의 소설 「여우사냥」을 원작으로 제작하였으며<sup>42)</sup>, 민비시해 100주년 기념으로 1995년 초연된 이후 2009년 국내 대형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1,000회 공연 기록을 갖게 되었다<sup>43)</sup>.

19세기 말 열강의 탐바구니에서 지략과 위엄을 잃지 않았던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의 삶을 다룬 뮤지컬로, 민비의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혼례장면부터 1895년 일본의 미우라에게 시해 당하기까지 12년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이다.

〈명성황후〉는 1998년 뉴욕 공연 때 새로 삽입된 ‘무과시협’과 ‘수태 곳’ 등 십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작품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더욱이 역사적 소재지만 화려한 무당춤 장면, 객석으로 무너질 듯 압도한 양이선(洋夷船)의 출몰 장면, 시해 장면에서의 역동적인 회전 무대, 명성황후의 부활 장면 등을 시각화함으로써 진부함에 빠지지 않고 관객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었다.

1996년 뮤지컬대상 의상상을 수상하였고 런던의 인디펜던트로부터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한 의상이라고 칭찬을 받았으며, 조명 또한 LA 오베이션 어워드(ovation awards)에 노미네이션 되어 ‘뉴욕타임즈’로부터 신이 내린 빛과도 같다는 찬사를 받았다<sup>44)</sup>.

의상디자이너인 김현숙은 조선왕조의 전통복식을 기본으로 하여 의상의 선과 실루엣을 결정하는 형태와 색감, 질감 등 3가지 기본요소의 과장, 변형, 축소, 덧붙임을 통해 당시의 비슷한 느낌을 살렸다<sup>45)</sup>. 가령, 형태면에서는 지나치게 긴 소매 길이로 장엄한 분위기로의 과장을, 색감에서는 황후 대례복

39) 뮤지컬 캣츠 공연홈페이지 [2010년 9월 2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musicalcats.co.kr>.

40) 이동섭, op. cit., p. 178.

41) 이지원, op. cit., p. 33.

42) 고석희, “한국뮤지컬 무대의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40.

43) “명성황후, 26일 1천회 공연” *Focus*, 2009년 11월 6일, p. B11.

44) 에이콤 인터내셔널, [2010년 3월 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iacom.co.kr>

45) “KBS 용의 눈물, 뮤지컬 명성황후 한복이 눈에 띄네,” *중앙일보*, 1997년 9월 13일, p. 11.

에 김정색을 많이 가미하여 현대적인 느낌으로 변형을, 길감면에서는 당의와 원삼에 금직의 화려한 양단을 소재로 사용하고 금색 브레이드로 장식을 덧 붙임하거나 신하들의 공복에 기하학 무늬의 자카드 직물을 사용하는 등 신선한 변화를 꾀하였다.

〈명성황후〉에서 황후의 복식 표현은 황금색과 자주색을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었고 금실을 함께 직조한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웅장해보이도록 하였다. 신하들의 관복에는 잿빛을 사용함으로써 당파싸움으로 찢든 대한제국 말엽의 어지러운 정치상을 표현하였으며, 흰색의 상복은 황후의 죽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백의민족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sup>46)</sup>.

궁중 문화와 서민 문화를 반영하는 600여 벌의 의상을 제작하였는데 의상의 재질은 화려함과 단아함을 동시에 살리는 현대적인 감각이었으며, 색상은 원색적이지 않고 자연색상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의상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 2) 〈댄싱 새도우〉

전쟁의 상황 속에서 피폐해가는 인간 군상들의 애욕을 묘사한 차범석의 희곡 ‘산불’을 7년이라는 긴 시간과 45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지만 25억의 적자를 본 창작 뮤지컬이다<sup>47)</sup>.

〈댄싱 새도우〉(2008)는 태양군과 달군의 전쟁에 휘말려 낮에는 태양군에, 밤에는 달군에 조공을 하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콘스탄자 마을 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의상을 담당한 니키 셔우(Nicky shaw)는 무대도 함께 디자인하여 무대와 의상에 통일성을 주었으며, 의상의 컨셉은 전쟁 속의 승리와 패배를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와 사랑을 표현하는 데 두었다.

마마아스터는 신다의 어머니이며 나쉬탈라와 카타아의 고모인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마을을 수호하는 영혼의 숲을 파괴하는 것조차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을의 우두머리이다. 남과 싸우기 좋아하며, 정력적이고 교활하고 음흉한 과부여서 강

한 이미지를 위해 디자인과 원단을 다른 인물보다는 강하게 사용하였다.

나쉬탈라는 순수한 영혼을 지닌 젊은 여인이며 숲의 영혼을 이해하는 숲의 수호자이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수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면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한다. 편안하고도 자연스러운 미모를 지닌 매력적인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 심플한 디자인과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녹색과 갈색을 사용하였다.

상반된 캐릭터인 신다는 지긋지긋한 숲을 떠나 도시로 돌아가고픈 꿈을 지닌 선정적이며, 다소 교활하고 관능적인 인물로 솔로몬을 사이에 두고 나쉬탈라와 대적하게 되며 과감한 노출스타일과 붉은 색상을 선택하였다.

남자들의 군복은 그레이 색상의 면 소재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태양군과 달군은 견장과 모자의 형태로 구분을 하고, 하사관과 일반군인은 모자형태로, 캡틴은 완장과 블랙 롱 코트로 차별화하였다.

양상블 의상의 핵심인 나무의상은 인간의 영혼과 나무의 형상이 하나 되어가는 의미로 최대한 나무느낌의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여성 양상블은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남성 양상블은 강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마을 여성들의 기본 의상들은 1940, 50년대 원피스의 기본 실루엣에 파스텔 톤의 면 소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튀지 않았으며 카디건과 재킷, 코트로 변화를 주었다. 어떤 배역도 튀거나 현란하지 않은 디자인과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여 전쟁의 느낌을 극적으로 표현하였지만 공간을 가상으로 설정한 탓에 마을 여성들의 의상은 유럽풍도 남미풍도 아닌 국적불명의 것이 되었다.

대형 창작 뮤지컬인 〈댄싱 새도우〉는 극본, 음악, 연출, 편곡, 안무, 무대, 의상, 조명, 음향 등 총 아홉 개의 주요 분야에서 외국 스태프가 수장이 됨으로서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 3) 〈영웅〉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영웅〉

46) 김사승, “이것이 토종 뮤지컬이다,” *문화일보*, 1999년 3월 30일.

47) 박명성, *op. cit.*, p. 221.

(2009)은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 신분인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 암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실제 사건인 만큼 1909년 중국 현지 사진자료와 모형 등 고증을 통해 사실감을 더했으며, 영상과 무대효과를 접목시킨 디지로그(Digilog) 방식을 사용하여<sup>48)</sup> 일본 형사들과 독립군이 영상 속을 질주는 추격전은 발전된 무대미술의 기술력을 실감하게 하였다.

궁녀 설희는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을 목격한 뒤 대한제국 ‘제국익문사’의 요원이 되고 일본에 위장 침투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을 꾀하는 인물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관심을 끌기위해 게이샤로서 착용한 의상은 밑단부분이 붉은 색으로 그라데이션 된 흰색의 기모노를 착용하고, 그 위에 붉은 색 실크 바탕지와 꽃과 나비가 화려하게 수놓인 검정색의 비치는 소재를 겹으로 사용하여 만든 우치키

(袷, うちき)를 덧입고 있다. 다만 우치키는 메이지(明治)시대의 의상으로 소매부리에 선장식이 없는데 소매단에 장식선을 두른 것은 무대의상으로서 강조된 디자인으로 생각된다. 한민족으로의 흰색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붉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애국심으로 목숨까지 버린 매혹적인 여성으로 그려졌다.

중국 여인 링링은 녹색과 주황색의 치파오(旗袍)를 착용하였는데 천진난만하면서도 안중근을 짝사랑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표현되었다.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군의 의상은 중간 톤과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고 소재의 낡음을 표현하여 당시의 무겁고 어두운 상황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의상의 특징은 1930년대 복고풍의 세련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증을 기반으로 하되 색상과 원단은 상황 묘사에 맞춰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

<표 1> 뮤지컬 작품 유형과 특성

	뮤지컬 작품			특성
오 페라 적 뮤 지 컬	<오페라의 유령>	<아이이다>	<노트르담 드 파리>	역사적 배경 시대 반영 낭만주의 성향
				
	<시카고>	<헤어스프레이>	<갯츠>	
브로드웨이적 뮤 지 컬				사회적 풍자 사실주의 성향 오락적 요소
한 국적 창 작 뮤 지 컬	<명성황후>	<덴싱 새도우>	<영웅>	
			기승전결의 구조 애국심에 호소 향토적 요소 시대적 사건 배경	

48) “뮤지컬 타고 역사 속으로, ‘영웅’과 ‘남한산성,’” *아주경제*, 2009년 10월 19일.

〈표 2〉 한국 뮤지컬의 유형별 의상 특성

	오페라적 뮤지컬	브로드웨이적 뮤지컬	한국적 창작 뮤지컬
디자인	· 시대를 고증한 디자인 혹은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 · 스타일의 과장과 생략 · 섬세한 장식	· 상상력이 돋보이는 장식성 · 프로덕션 넘버가 돋보이는 디자인 · 미니멀리즘	· 시대성과 현대적 감각 공존 · 화려하지 않은 사실적 표현 · 장식 효과가 적음
색상	· 시대색을 반영한 화려함 · 배역별 상징색 사용	· 흑백대비 혹은 원색의 강렬한 색상 사용	· 원색적이지 않은 자연색상 사용
소재	· 시대성이 반영된 화려한 소재 · 여러 가지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	· 한 의상에 한 가지 소재를 단순하게 사용	· 지역적 공간성을 반영한 소재 사용 · 현대적 감각의 소재 접목
제작	· 오리지널 의상 라이선스 대여 혹은 디자인 카피하여 국내 제작	· 오리지널 의상 라이선스 대여 혹은 디자인 카피하여 국내 제작	· 국내, 외 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과 국내 제작
기타	· 시대 재현을 위해 가발 사용 · 교체 의상 수가 많음	· 개성 표현을 위해 가발 사용 · 현대적 조명감각으로 의상디자인 부각	·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인물의 성격 표현에 중점

한국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대표적인 작품을 고찰한 결과 각 유형별로 나타난 뮤지컬 의상의 특성을 〈표 2〉로 정리하였다. 뮤지컬 유형별로 특징적으로 선호하는 디자인 경향과 소재, 색상의 쓰임이 있었으며 향후 공연의 경우 드러난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디자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뮤지컬은 대중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무대로 진출하기에 적합한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유형은 유럽의 오페라적 뮤지컬과 미국의 브로드웨이적 뮤지컬, 한국적 창작 뮤지컬로 나눌 수 있다. 유럽의 오페라적 뮤지컬과 미국의 브로드웨이적 뮤지컬에 사용되는 의상은 주로 원작 의상을 라이선스로 빌려오거나 원작의 디자인을 보고 비슷한 원단을 구하여 한국에서 제작한다. 한국적 창작 뮤지컬에 필요한 의상은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고유의 스타일과 색깔이 가미되며 국내 디자이너나 국외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디자인하고 국내에서 제작된다.

라이선스 작품의 의상 제작 시 원작이 지니고 있던 고유성이 변형되어 잘못된 이미지로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는 외국 배우와 국내 배우의 체형과

피부색, 문화 이해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또한 디자인 작업 없이 라이선스 의상 제작만 거듭한다면 의상을 만드는 기술자가 될 뿐 이므로 창의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의상의 비중보다는 창작 뮤지컬 의상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페라적 뮤지컬 유형의 의상은 시대를 고증하거나 시대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디자인되며 많은 의상을 제작하여 무대의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브로드웨이적 뮤지컬 유형의 의상은 심플하지만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며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소재와 색상을 사용하였다. 반면 한국적 창작 뮤지컬 유형의 의상은 시대성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며 튀지 않는 색상과 소재로 사실적인 표현에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의상 디자인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 그대로 재현되거나 과거의 특징을 바탕으로 변형된 의상을 현대적으로 구성하는 실제적인 접근 방법으로 디자인되지만, 최근 순수 창작 뮤지컬이 많아짐으로서 연출의도에 따라 배경과 상관 없이 새롭게 설정된 환경에 맞춰 현대적으로 구성하는 추상적인 접근 방법 등 의상디자인의 독창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다.

점차 한국적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커지는 요즘 여러 편의 작품이 세계무대를 겨냥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제작되고 있는데, 종종 ‘세계 무대 진

출'이라는 목표 아래 국적불명의 의상이 연출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이질적인 문화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장하여 흥행을 이룰 수 있는가는 앞서 제작된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한국적인 미를 표현한 뮤지컬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실루엣과 소재, 색상 등 우리나라 고유의 것에 현대적인 안목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뮤지컬 의상 분야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뮤지컬 전문배우가 양성되어야 하듯이 문화예술아카데미 같은 교육기관에 실습과 발표 공연이 가능한 뮤지컬 의상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의상디자이너를 양성한 후 뮤지컬단체와의 연계성을 통해 실질적인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르고 공연예술아카데미에 개설된 무대의상전공도 2010년부터는 수강인원 부족과 제정의 이유로 폐강되었고 일부 대학에는 무대의상이라는 한 학기 강좌가 개설되어있는 정도여서 무대의상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이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뮤지컬 극단 시키(四季)처럼 의상스태프에게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전문인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좋은 작품으로 다듬을 수 있는 공연 기간의 확보가 가능한 뮤지컬 전용극장의 양적인 증가와 의상 제작과 보관이 가능한 공간 확보 등 공연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공연이 끝난 뮤지컬 의상은 작품과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대여 시스템을 갖추어서 추후 뮤지컬 의상 디자인을 준비하는 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작품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관이나 기업의 안정적인 제작 지원이 있어야만 제작비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이나 의상수를 조절해야하거나 의상 제작 기간에 쫓기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공연 중인 <프리실라>의 공연장에는 주인공 의상의 소품인 핑크색 깃털 목도리를 두른 관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는 뮤지컬 의상이 무대 의상으로서의 기능 뿐 만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과 홍보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뮤지컬 의상디자이너는 공연 작품의 시각적 해석과 예술적 표현 능력, 의상 분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는 것 뿐 만 아니라 실제 제작에 참여하여 얻은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더욱이 문화산업의 특성을 지닌 뮤지컬에서 뮤지컬 의상이 공연 작품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어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 상품으로서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실물을 통한 분석이 아니라 공연 관람이나 인터넷 화면과 지면에 노출된 의상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화상의 질이나 촬영된 각도로 인하여 완벽한 형태 파악이나 소재, 색상의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차후 연구로는 전문 뮤지컬 단체의 의상 공급과 보관에 관한 현황 조사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강대영 (1999). *한국분장파 예술*. 서울: 지인당.
- 고석희 (2002). “한국 뮤지컬 무대의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철 (2002). *아이러브 뮤지컬*. 서울: 효형.
- 김성희 (2002). “한국 초창기 뮤지컬 운동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한국예술연구* 14집.
- 뮤지컬 캣츠 공연홈페이지, [2010년 9월 2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musicalcats.co.kr.
- 박명성 (2009). *뮤지컬 드림*. 서울: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 서정미 (2007). *런던에서 뮤지컬 보기*. 서울: 우일.
- 서지성 (2006). “뮤지컬 불의 검 공연의상 제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실도운 (2005). *오페라의 유령 가면을 벗다*. 서울: 숲.
- 손정섭 (2001). *뮤지컬 Oh! 뮤지컬*. 서울: 북스토리.
- 스티븐 시트론, 정재왕, 정명주 역 (2001). *뮤지컬·기획·제작·공연의 모든 것*. 서울: 열린 책들.
- 어은정 (2004). “Opera와 Musical의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에이콤 인터내셔널, [2010년 3월 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iacom.co.kr>.
- 원종원 (2005).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 권 1호.
- 원종원 (2006). *올댓 뮤지컬*. 서울: 동아시아.
- 윤선경 (2007). *뮤지컬 테이트*. 서울: 대광서림.
- 이동섭 (2009). *뮤지컬 토크 2.0*. 서울: 미진사.
- 이보연 (2007). *뮤지컬 포에버*. 서울: 루비박스.
- 이지원 (2008). *뮤지컬 쇼쇼쇼*. 서울: 삼성.
- 정재왕 (2009). *뮤지컬을 꿈꾸다*. 서울: 아이세움.
- 차태호 (1999). *꿈의 예술 뮤지컬 연출 체크리스트*. 서울: 엠에드.
- 최영로 (2004).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의 무대의 상 제작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창권 (1991). *한국음악총람*. 서울: 한국음악협회.
- 15th 한국 뮤지컬대상 시상식, [2009년 10월 2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koreamusicalawards.com>
- Jean Hunnisett (1991). *Period Costume for Stage & Screen*. SC: Players Press Inc.
- musical chicago 홈페이지 [2010년 3월 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musicalchicago.co.kr>
- THE MUSICAL (2010). No. 76. 78. 서울: (주)클럽서비스.
- The official Website of American Theatre Wing's Tony Awards [2009년 10월 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tonyawards.com/en\\_US/index.html](http://www.tonyawards.com/en_US/index.html).
- “국내판 ‘캣츠’ 저작권위반. 국내 공연금지.” *한국경제신문*. 2000년 5월 17일.
- “마이 스케어리 길 뉴욕 우뚝.” *metro*. 2009년 11월 3일.
- “명성황후, 26일 1천회 공연.” *Focus*. 2009년 11월 6일.
- “1990년대 후반과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 뮤지컬의 주제와 작품경향” [2009년 11월 2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blog.daum.net/gangseo>